

#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 정 애\* · 손 영 철\*\* · 이 정 화\*\*\*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제언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에 따른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차이와 상관관계를 적응유연성과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하나원 출신의 남한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총 226명에게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탈북동기에 따른 남한사회 환경적 적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탈북동기에 따른 남한사회 심리적 적응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탈북동기에 따라서 환경적 적응은 달라지지 않지만, 심리적 적응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심리적 적응에 한해, 구체적으로 각각의 탈북동기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가 있는지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형과 미래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미래형 동기를 가지고 탈북한 사람과 경제형 동기를 가지고 탈북한 사람에 비해 심리적 적응이 높음을 알게 해주는 결과이다. 적응유연성에 따른 남한사회적응에서는 환경

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의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응유연성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탈북동기와 적응유연성에 따른 남한사회적응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적응유연성과 탈북동기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한사회적응의 두 하위요인인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이것은 환경적 적응이 높아짐에 따라 심리적 적응도 높아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증진하기 위한 실제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 자료 제공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탈북동기, 남한사회적응, 적응유연성

\* 한라대학교 교양교직과 외래교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상담심리전문가(교신저자)  
\*\*\*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교수

## I. 서론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동기는 가족상봉과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자료에 의하면 ‘돈벌러 왔다’가 30%, ‘가족 초청’이 50%를 차지, ‘가족’동기가 절대적 요인으로 되고 있어 북한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는 그다지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10%인 약 2,000명 정도가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의지보다는 우리 사회의 포용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sup>2</sup> 북한이탈주민의 재북시 직업은 무직, 단순노동이 90%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sup>3</sup> 이들에게 어떤 정착지원책을 추진해야 효과를 볼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정부의 정착지원 수준은 낮은 편은 아니지만 적정 목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주거정착이나 경제적 지원 외에도, 실제로 남한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적응은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기능이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이 모두 해당된다.<sup>4</sup> 따라서 적응의 범주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이 포함되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기능이나 심리적 기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sup>5</sup> 사회적 적응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sup>6</sup> 사회에 대한 소속감<sup>7</sup> 등으로 개념화 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일상생활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살아갈 때 사회적 적응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일상생활을 잘 수행해 나가는 상태를 남한사회적응으로 정의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

<sup>1</sup>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서울: 통일부, 2012), pp. 82~83.

<sup>2</sup> 위의 책, p. 97.

<sup>3</sup> 위의 책, p. 82.

<sup>4</sup> R. S. Lazarus &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sup>5</sup> 김재엽·최지현·류원정, “PTSD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사회적 교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4호 (2012), p. 344.

<sup>6</sup> J. W. Berry and D. L. Sam,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J. W. Berry, M. H. Segall, and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 1997.

<sup>7</sup> 강유경,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경제수준, 남한정착기간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sup>8</sup> 외상후스트레스장애,<sup>9</sup> 적극적인 성격, 자아존중감, 탄력성 등의 개인적 특성,<sup>10</sup> 사회적 지지<sup>11</sup> 등이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탈북자 발생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 탈북동기와 이들의 적응 간 차이를 분석한 후에 상호상관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동기(動機)는 심리학 용어로 동인(動因)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나 동인은 생리적·생물 발생적인 데 반해 동기는 개인 간의 관계, 그룹 간의 관계, 또는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 제도 등과의 관계 즉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는 것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를 알아보는 것은 탈북자 발생의 배경과 원인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남한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탐색하는 지속적인 적응 요인이 된다고 본다. 탈북동기는 허지연(2003)의 연구에서 제시한 정치·경제·사회·미래형으로 구분한 개념을 적용하였으며<sup>12</sup>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를 남한사회적응의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한편,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중 적응유연성은 ‘외상경험과 문화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수준의 기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개인내적 특성, 대처행동 및 보호요인’으로 정의한다.<sup>13</sup> 이는 개인이 역경이나 급격한 문화변화에도 불구하고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특성 중 긍정적이고 강점이 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문제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이들이 가진 적응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응유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하나원 수료 후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sup>8</sup> 박윤숙,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sup>9</sup> 서주연,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sup>10</sup> 박미석·이종남, “탈북가족의 남한사회 적응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 『통일논총』, 제17권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1999).

<sup>11</sup> 유시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카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sup>12</sup> 허지연, “탈북자의 탈북요인과 중국, 한국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 이상적 정착지와 행위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3), pp. 5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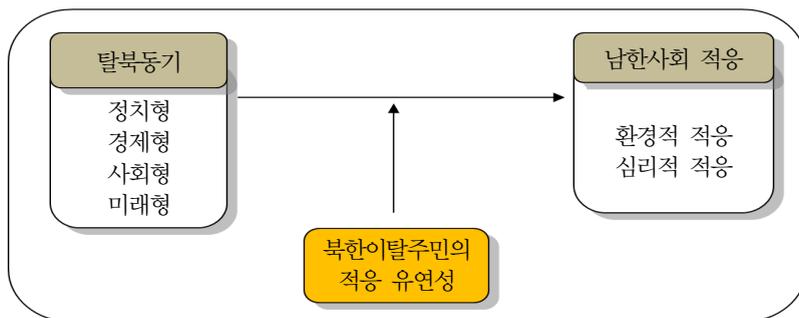
<sup>13</sup> 김현아, “새터민의 적응유연성 척도 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p. 6~7.

북한이탈주민 82명을 대상으로 적응실태를 조사한 박인아(2004)의 연구에서는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대상이 응답자의 19.5%로 나타났고 ‘잘 적응한다’는 응답자가 24.4%로 나타나 외상이나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sup>14</sup>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한의 이질적인 문화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적응유연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유연성이 남한사회적응을 높일 뿐 아니라, 적응유연성이 높은 북한이탈주민들은 각각 상이한 탈북동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절하여 남한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응유연성을 탈북동기가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사회적응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 경로에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동기에 따라 남한사회적응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에 따라 남한사회적응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탈북동기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에 따라 남한사회적응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넷째, 남한사회적응의 두 하위요인인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는 탈북동기에 따른 지원방안의 차별화 방안 강구, 적응유연성의 증진 등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sup>14</sup> 박인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분석: 하나원 교육생과 사회 배출자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II. 이론적 배경

### 1. 탈북동기

동기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內的)인 직접요인(直接要因)의 총칭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동기부여의 내용이론(content theories)은 무엇이 개인의 행동을 유지 혹은 활성화시키는가 혹은 환경 속의 무슨 요인이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가에 관한 이론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무엇이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목숨을 담보하고 탈북을 감행하게 되는 내적·환경적 요인이 되는가의 문제가 탈북동기라는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다루어 질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이들의 남한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탈북동기를 분석한 연구물은 많지 않다. 2012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동기(복수응답)는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52.8%)’, ‘자유를 찾아서(32%)’, ‘북한체제가 싫어서(23.6%)’,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19.0%)’, ‘가족을 따라서(15.0%)’, ‘가족을 찾거나 결합을 위해서(9.4%)’, ‘신변위협(9.4%)’ 순으로 나타났다.<sup>15</sup> 또한 중국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주요 탈북동기 및 탈북동기의 우선순위(복수응답)를 알아보면 <표 1>과 같다.<sup>16</sup> 탈북 여성들의 가장 큰 탈북동기는 ‘배가 고파 먹고 살기 위해서(81.7%)’, ‘중국에서 일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해서(75.2%)’, ‘북조선에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50.5%)’, ‘같이 탈북할 사람들이 있어서(37.1%)’, ‘중국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15.8%)’, ‘부모나 형제, 주변사람들의 권유에 의해(8.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sup>15</sup>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pp. 82~83.

<sup>16</sup> 문숙재·김지희·이명근,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2000), p. 145.

<표 1> 탈북동기의 우선순위

(N=202)

순위	탈북동기	빈도(%)	백분율(%)
1	배가고파 먹고 살기 위해서	165	81.7
2	중국에서 일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해서	152	75.2
3	북조선에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02	50.5
4	같이 탈북할 사람들이 있어서	75	37.1
5	중국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32	15.8
6	부모나 형제, 주변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17	8.4
7	빚 때문에	8	4.0
8	중국으로 오는지 모르고 팔려옴	1	0.5

이상의 두 가지 연구조사 결과에 나타난 가장 주된 탈북동기는 북한에서의 식량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탈북자 발생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을 전후로 하여 탈북동기와 탈북 양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발견한 연구가 있다. 2000년 이전에 대량 탈북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1990년대 북한의 구조적인 경제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배고픔에 시달린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구할 목적으로 무작정 도강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 머무르면서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대량 탈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2000년 이전의 탈북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2000년 이후 탈북은 식량난을 피해 양식을 구하고 생존을 위한 선택적 차원의 것이 아닌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삶의 질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즉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부족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닌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주노동자’ 성격의 탈북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먼저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탈출시켜 함께 살려고 하거나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한 탈북의 유형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허지연(2003년)은 북한이 탈북민들의 탈북동기를 크게 정치형, 경제형, 사회형, 미래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한다.<sup>17</sup> 첫째, 구체적으로 정치형의 탈북동기는 ① 정치체제 불만형과 ② 신변위협 모면형이 있다. 먼저 정치체제 불만형은 수령유일체제로 대변되는 북한의 1인

<sup>17</sup> 허지연, “탈북자의 탈북요인과 중국, 한국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 이상적 정착지와 행위변화를 중심으로.”

독점적 정치체제가 싫거나 정치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거나 주체사상으로 대변되는 북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불만으로 탈북한 경우이다. 다음으로 신변위협 모면형은 개인이나 가족의 신변에 변화가 생겨 탈북을 선택한 경우로 대부분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신변의 변화가 생겨 탈북하고 있다. 둘째, 경제형의 탈북동기는 ① 식량 조달형과 ② 생계유지형이 있다. 먼저 식량 조달형은 국가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지 못하여 식량을 찾기 위해 탈북을 선택한 경우이다. 다음으로 생계유지형은 단순히 식량뿐만 아니라 장사 등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 탈북을 선택한 경우로서, 식량 조달형에 비하면 보다 적극적인 경제행위라 할 수 있다. 셋째, 사회형의 탈북동기는 ① 출신성분 탈피형과 ② 가족·친척 상봉형이 있다. 먼저 출신성분 탈피형은 북한에서의 출신성분 때문에 사회적 계층이동의 한계를 느껴 탈북한 경우이다. 특히 남한출신이나, 해외에 친척이 있을 경우 출신성분은 좋지 않다고 평가된다. 때문에 탈북을 선택한 이들은 출신성분을 탈피하길 바라며 본인 혹은 가족의 고향으로 가서 출신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가족·친척 상봉형은 친척이나 가족이 중국, 한국 등에 살고 있어 이들을 만나기 위해 탈북한 경우이다. 이 유형은 중국 등에서 잠시 가족·친척을 상봉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와 북한에 있을 때부터 중국, 한국 등의 가족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탈북한 경우가 있다. 넷째, 미래형의 탈북동기는 ① 자유갈망형과 ② 삶의 질 향상형이 있다. 먼저 자유갈망형 탈북은 구속적인 북한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에서 발생된다. 다음으로 삶의 질 향상형은 본인이나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탈북한 경우이다.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대상이 자식일 경우에는 대부분 이들의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탈북하고 있다.

## 2. 남한사회적응

### 가. 적응의 개념

적응(adaptation)은 환경에 맞추어 어울림 혹은 적합하게 변화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적절하고 유익하게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으로 외부 세계의 현실에 적당히 맞추는 활동과, 환경을 바꾸거나 더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개인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함께 어울림(adaptedness)’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한 상태로 이끄는 심리적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 개인의 내적 요구와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바꾸는 것을 외부 변형(alloplastic)이라고 부르는 한편, 외부 세계에 맞추어 자신을 내적 및 심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부 변형(autoplactic)이라고 부른다.

최근의 연구들은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적응을 정의한다. 적응이란 개인이 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만족을 얻어가는 과정,<sup>18</sup> 혹은 개인의 내적, 심리적 욕구와 외적, 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로<sup>19</sup> 정의한 연구들이 그 예이다.

### 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환경적 적응

적응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 등 여러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치체계, 법, 제도 등의 환경이 변화된 상태인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며, 신체적 변화보다는 사회적 변화를 크게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남한사회적응 요인 중 사회적 적응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 중 먼저 환경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사회적 적응과 관련하여 Berry & Sam(1997)은 사회문화적 적응을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sup>20</sup> 강유경(2011)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화 욕구의 반영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sup>21</sup>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국조치 후 초기자립지원과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초기적응은 하나원에서의 적응교육을 비롯하여 하나원 퇴소 이후 취직, 정착지원금 지급 및 주거 알선 등의 과정이 포함되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로는 신변담당관 제도와 취업보호담당관 제도, 거주지보호담당관 제도를 두어 정착 후 지속적인 보호 및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sup>22</sup>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성공적인 적응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sup>18</sup> 남석인, “신장이식인의 스트레스가 이식 후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sup>19</sup>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귀순자 수기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sup>20</sup> J. W. Berry and D. L. Sam,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sup>21</sup> 강유경,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sup>22</sup> 강권찬,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분석,” 『민족연구』, 14권 (2005).

으로 보고되고 있다.<sup>23</sup> 하영수의 연구(2010)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성공률이 15% 미만이라고 지적하며, 낮은 사회정착 성공률이 심리적,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sup>24</sup> 이와 관련하여 강해성(2011)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25</sup> 하지만 현재 초기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하나원의 교육은 12주도 남한사회 전체를 이해하기에 부족하고,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므로 하나원의 교육만으로 남한사회적응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후관리 의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잦은 교체와 업무과중으로 인한 업무기피 등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형식적인 지도 관리에 치중하는 문제점이 있다.<sup>26</sup>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기자립 지원 및 사후관리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주거정착 이후에 사회적응이라는 과정이 있지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정착지원제도에 일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심리적 적응

북한이탈주민들이 보여주는 부적응문제는 이들의 심리적 특성 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현아·전명남(2003)은 821명의 초기 사회적응기관에서 보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차에 따른 MMPI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타당도에서는 L척도 상승을 그밖에 Pa척도(편집증), Ma척도(경조증), Sc척도(정신분열증), Hs척도(건강염려증)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7</sup> L척도는 방어적인 태도로서 사소한 결점이나 인간적인 약점마저 부인하면서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긍정 왜곡(faking-good) 경향을 나타낸다. 이들은 충동적이며, 자존심 손상에 대해 예

<sup>23</sup> 조동운·김용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안행정논집』, 제8권 2호(2011), pp. 25~50.

<sup>24</sup> 하영수,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과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7권 1호(2010).

<sup>25</sup> 강해성,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초기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sup>26</sup> 최동문, “북한이탈주민 정착적응 실태와 발전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sup>27</sup> 김현아 외, “MMPI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차 특성,” 『통일연구』, 제7권 제2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3).

민 반응하고 통제를 싫어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 행동주의 성향과 극단주의 성향이 강하며 비정상적 기대수준과 불안정성, 극도의 안정욕구로 특징 지웠다. 전우택(2005)은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4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탈북자들을 지원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불안과 불신,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를 꼽았다.<sup>28</sup> 자원봉사자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갖는 호감이 가는 심리적 특성은 정, 예의, 적극성, 직설적 태도, 의지력을 꼽았고, 비호감이 가는 심리적 특성은 비타협·공격적 태도, 의존성·의지부족, 물질만능·이기적 태도, 관계회피, 남성우월주의 등을 들었다. 이러한 대인매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적응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상호작용할 것이며 남 북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지니는 상호이질감의 중요한 매개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에서 보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기 힘들어 하면서 이러한 불신감이나 조심스러운 태도로 인하여 관계형성 자체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대인관계에서 얻어지는 부정적 피드백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지나친 방어기제와 불신감 및 피해의식은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겪게 되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충하면서 이들의 자존심을 손상시켜 행동화하도록 작용함으로써 사회집단에서의 품행장애 행동이나 범죄행위와 같은 일탈행위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손영철이 2011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하나원에서 남성 북한이탈주민들 약 250명을 대상으로 상담한 결과 이들의 심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사회에서 상당히 외로움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둘째, 이들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해 상당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셋째,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서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병리적으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비슷한 불안을 체험하고 있었다. 넷째,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열등감, 정체성과 관련된 갈등, 괴리감, 의사소통의 스트레스와 두 개의 공존할 수 없는 감정, 생각, 인식, 충동이 동시에 한 사람의 마음속에 공존하는 심리적 갈등상태인 양가감정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우택(2005)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람도 못되고 북한사람도 아닌 특별한 사람이면서 보통 사람이라는 모호한 정체성을 지닌다고 하였다.<sup>29</sup> 즉 남한정부에 대해서도 의존심과

<sup>28</sup> 전우택, “남한 내 탈북자들의 의식 및 생활만족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Vol. 43, No. 1 (2004), pp. 93~104.

<sup>29</sup>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pp. 109~167.

독립심의 중간에 있으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중간 입장에서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기억해야 할지, 잊어야 할지를 늘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사회 심리적 적응을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불안감이 없고 남한사회 구성원으로써 소속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 3. 적응유연성

#### 가. 적응유연성의 개념

적응유연성(resilience)은 라틴어의 ‘salire’와 ‘resilire’에서 유래된 말로서 어원상 ‘회복 혹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압력이 가해질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물질의 유연함, 탄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허약함 혹은 우울 후에 용기 또는 활기를 얻기 쉬움”으로 정의하였다.<sup>30</sup> Waite와 Weiner, Delahunty(1998)에 따르면 이러한 개념이 인간에게 적용되면서 “변화나 역경에 쉽게 적응하거나 회복하는 능력, 질병이나 충격, 역경으로부터 빨리 회복되는 힘 혹은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대처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sup>31</sup>

적응유연성은 흔히 보호요인의 개념과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적응유연성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보호요인은 적응유연성 결과가 나오도록 영향을 미치는 과정요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호요인은 위험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문제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을 말한다. 실제적으로 적응유연성이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처를 덜 받거나 역경에 취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sup>32</sup> 즉, 적응유연성은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sup>30</sup> Merriam-Webster, *Webster's Ni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Springfield, Mass: Merriam-Webster (1983).

<sup>31</sup> M. Waite, E. Weiner & A. Delahunty (eds.), *Oxford Dictionary and Usage Guide to the English Language* (N.Y.: The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sup>32</sup> 박현선,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11권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8), pp. 23~52.

적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힘을 가진 조합이라고 정의한다.<sup>33</sup> 또한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초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며 유능감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으로<sup>34</sup> 보기도 한다.

특히 Luthar와 Cicchetti(2000)는 적응유연성을 “심각한 외상이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적응을 보여주는 개인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다.<sup>35</sup> 이것은 적응유연성의 개념이 ① 역경에 처해 있고, ② 긍정적인 적응의 표시라는 두 가지 요인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선행조건은 적응유연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최근 통합모델에서 말하는 적응유연성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외상으로부터 건강한 회복력을 의미한다.<sup>36</sup>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는 분야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회복력,<sup>37</sup> 복원력,<sup>38</sup> 탄력성,<sup>39</sup> 자아탄력성,<sup>40</sup> 적응유연성,<sup>41</sup> 극복력<sup>42</sup>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고 그 개념에 있어서도 분명하고 명확한 정의 없이 보호요인이나 적응과 중복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응유연성의 개념은 보호 및 환경요인을 포함시키는 문제뿐 아니라 상태(예, 단기간의 상태), 특성(예, 장기간의 성격), 과정(상호작용)에 따라 적응유연성의 구성요소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적응과정상에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적응유연성을 통합적인 구성개념으로 보고 “외상(trauma)과 문화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신병리를 일으키지 않으며 중요한

<sup>33</sup> N. Garmezy,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Vol. 56 (1993), pp. 127~136.

<sup>34</sup> 이소영, “학교중단 청소년의 중퇴이후 적응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sup>35</sup> S. S. Luthar & D. Cicchetti, “The Construct of Resilienc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and Social Polic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12 (2000), pp. 857~885.

<sup>36</sup> J. P. Wilson & B. Drozdek, *Broken Spirits: The Treatment of Traumatized Asylum Seeker, Refugees and War and Torture Victims* (N.Y.: Brunner, 2004).

<sup>37</sup> 김혜성, “회복력 개념 개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sup>38</sup> 전미영, “암으로 사별한 가족의 복원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sup>39</sup> 김승경,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협-보호요인들 간의 경로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sup>40</sup> 구형모 외, “CCQ 자아탄력 척도와 자아통제 척도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 20권 2호 (2001), pp. 345~358.

<sup>41</sup> 박현신, “실직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한국아동복지학』 제8호 (1999), pp. 35~58.

<sup>42</sup> 김동희, “만성질환아의 극복력(resilience) 측정도구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수준의 기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개인의 내적 특성, 대처양상 및 보호요인”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 나. 적응유연성과 사회적응의 관계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과 적응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이 남한 입국 후 정착지에서의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미석과 이종남(1999)은 탈북자 가족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대표적인 조건으로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성격과 높은 자아존중감, 탈북자 자신이 보유한 자원 등으로 보았다.<sup>43</sup> 김성운(2005)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나온 새터민 수기 중 40편을 대상으로 강점요인, 약점요인, 기회요인, 위협요인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분석을 하였다.<sup>44</sup>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강점요인을 ‘고난극복, 자립, 자활의지, 새로운 아이디어, 면학, 직업교육, 필승적 각오’, 기회요인은 ‘자아실현, 정부지원, 교육기회 부여, 문호개방, 적성과 개성실현, 자영업, 종교자유’, 약점요인은 ‘가치관의 차이, 의식구조의 차이, 취업능력의 결여, 사회적 편견, 문화지체’이며, 위협요인은 ‘자립자활의지의 약화, 정서 심리적 불안상태, 가족해체, 남한주민과의 갈등, 새로운 환경 이질감, 과잉 교육지원’이라고 보았다.

한편 Maddi(1999)에 의하면 극도의 전쟁 외상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강인성이 높은 참가자는 SCL-90(간이정신진단검사, System Check List)의 불안, 우울, 신체화, 대인관계 민감성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up>45</sup> SCL-90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강인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를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위협에 대한 강한 조절요인으로 강조되어 오고 있다. 이원숙(2000)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안녕으로부터 정신장애, 스트레스 사건, 성폭력, 가족해체, 알코올 및 약물남용, 이혼, 사별, 암, 에이즈 등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sup>43</sup> 박미석·이종남, “탈북가족의 남한사회 적응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

<sup>44</sup> 김성운, 『새터민 정착의 사회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서울: 남북사회문화연구소, 2005).

<sup>45</sup> S. R. Maddi, “The Personality Construct of Hardiness: Effects on Experience, Coping and Strain,”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Practice and Research*. Vol. 51 (1999).

부분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sup>46</sup>

삶의 의미는 인간의 다양한 적응영역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인간의 행동과 경험은 다양한 의미수준에 의해 외부의 영향과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어려움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의미수준의 증가는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긍정적인 만족감과 자아충족감을 증대시킨다.<sup>47</sup> 따라서 삶의 의미는 역경상황을 이겨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유성경 외(2004)는 가정위험 요소와 적응수준, 그리고 자아탄력성, 실존적 영성, 애착(또래, 부모)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자아탄력성과 실존적 영성이 매개효과를 가장 뚜렷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8</sup>

강한 종교적 신념은 통제감과 삶의 의미, 친밀감 등을 증진시킨다는 결과도 있다. 정성덕 외(2004)에 의하면 종교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주의 사회인 중국조선족 자치구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존적 안녕 정도가 높을수록 정신병적 경향 및 불안과 우울 모두 유의하게 낮았다.<sup>49</sup> 즉 실존적 안녕감은 정신병적 경향 및 불안과 우울을 모두 낮추어 주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이 남한사회적응을 효과적으로 돕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응유연성을 남한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하나원 출신의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총 226명에게 2013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탈북동기를 응답하지

<sup>46</sup> 이원숙, “성폭력 상담의 사회복지적 지원체계-위기상담으로서의 성폭력 상담-.” 『한국성폭력상담소』, Vol. 2000, No. 1 (2000), pp. 73~92.

<sup>47</sup> 김택호,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sup>48</sup> 유성경 외,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제18권 1호 (2004), pp. 393~408.

<sup>49</sup> 정성덕 외, “중국 거주 조선족 여성의 영적 안녕정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영남의대학술지』 제21권 2호 (2004), pp. 151~166.

않은 24명과 10문항 이상 응답하지 않은 4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98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가. 탈북동기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허지연(2003)에 의해 제안된 탈북동기 설문지를<sup>50</sup> 사용하였다. 허지연(2003)의 연구에 따라 탈북동기를 정치형, 경제형, 사회형, 미래형으로 나누었으며 이 중 북한이탈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동기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정치형은 정치적, 이념적 이유와 정치적 신변위협으로 설명되었으며, 경제형은 먹고 살기 위한 이유와 식량난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를 포함하였다. 또한 사회형은 좋지 않은 출신성분에서 벗어나기 위함과 가족, 친척들을 만나기 위한 이유로 구성되었고, 미래형은 자유와 보다 나은 개인적 삶의 이유를 포함하였다.

### 나. 적응유연성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현아(2006)에 의해 개발된 새터민의 적응유연성 척도를<sup>51</sup>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2문항으로 7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은 강인성(7문항, Cronbach's  $\alpha=.87$ ), 종교성향(6문항, Cronbach's  $\alpha=.92$ ), 친밀감(7문항, Cronbach's  $\alpha=.87$ ), 사회적 지지(6문항, Cronbach's  $\alpha=.85$ ), 꿈과 목표(5문항, Cronbach's  $\alpha=.86$ ), 실존적 영성 요인(6문항, Cronbach's  $\alpha=.80$ ), 인내심(5문항, Cronbach's  $\alpha=.79$ )으로 구성되었다.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2번, 33번, 34번, 35번, 37번 문항은 부정문항으로 분석 시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sup>50</sup> 허지연, “탈북자의 탈북요인과 중국, 한국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 이상적 정착지와 행위 변화를 중심으로.”

<sup>51</sup> 김현아, “새터민의 적응유연성 척도 개발.”

### 다. 남한사회적응

본 연구에서는 남한사회적응을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환경적 적응은 장혜경, 김영란(2000)의 사회적응문제 척도 12문항 중 김재엽, 최지현, 류원정(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10문항(Cronbach's  $\alpha=.905$ )을 바탕으로,<sup>52</sup> 심리적 적응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꺼릴 때가 있다’, ‘사람들이 나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서 차별을 느낀다’,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남한사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의 4문항을 제외하고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환경적 적응에 해당하는 6문항은 모두 부정 문항으로 분석 시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남한사회의 환경에 잘 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예정(2001)의 연구에서 쓰인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형태를 알아보는 문항<sup>53</sup> 중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 13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13문항은 모두 부정적 문항으로 분석 시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남한사회에 심리적으로 잘 적응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0.05에서 검증하였다( $p<.05$ ).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탈북동기에 따른 남한사회적응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변량분석 결과 유의미한 것에 대해서는 Bonferroni 사후검증을 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에 따른 남한사회적응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up>52</sup> 김재엽·최지현·류원정, “PTSD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사회적 교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의 설문지 10문항.

<sup>53</sup> 신예정,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삶과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우선 적응유연성의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적응유연성 고 집단’과 ‘적응유연성 저 집단’으로 나눈 후 두 집단의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독립표본t검사(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넷째, 탈북동기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에 따른 남한사회적응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변량분석 결과 유의미한 것에 대해서는 Bonferroni 사후검증을 하였다.

다섯째, 남한사회적응의 두 하위요인인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연령, 북한출생지, 북한에서의 최종거주지, 북한 탈출일, 남한 입국일, 성별, 북한에서의 학력, 남한에서의 학력, 결혼 경험, 북한에서의 직업, 남한에서의 직업, 북한에서의 노동당원 여부, 북한에서의 계층 지위, 북한에서의 경제적 생활수준, 남한에서의 경제적 생활수준, 종교에 관한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연령	39.343(세)		12.079(세)	
북한 탈출일	80.365(개월)		68.486(개월)	
남한 입국일	36.688(개월)		38.758(개월)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66	33.333	북한 최종 거주지	강원도	2	1.010
	여	104	52.525		개성시	1	0.505
	무응답	28	14.141		양강도	34	17.171
	합계	198	100.000		자강도	2	1.010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북한 출생지	강원도	5	2.525	북한 최종 거주지	평안도	7	3.535	
	양강도	39	19.696		평양	1	0.505	
	자강도	4	2.020		함경도	117	59.090	
	평안도	17	8.585		황해도	2	1.010	
	평양	9	4.545		중국	0	0.000	
	함경도	108	54.545		일본	1	0.505	
	황해도	3	1.515		무응답	31	15.656	
	중국	2	1.010		합계	198	100.000	
	일본	2	1.010		남한에서의 학력	고등학교 재학	3	1.515
	무응답	9	4.545			고등학교 졸업	17	8.585
	합계	198	100.000			전문대학교 재학	10	5.050
						전문대학교 졸업	2	1.010
북한에서의 학력	인민학교 중퇴/졸업	7	0.353	대학교 재학	11	5.555		
	고등중학교 중퇴/졸업	125	63.131	대학교 졸업	6	3.030		
	전문학교, 단과대학 중퇴/졸업	22	11.111	대학원 재학/졸업	3	1.515		
	대학중퇴/ 졸업	32	16.161	기타	34	17.171		
	연구원/박사원 중퇴/졸업	1	0.505	무응답	112	56.565		
	기타	4	2.020	합계	198	100.000		
	무응답	7	3.535	북한에서의 직업	노동자/생산직	64	32.323	
	합계	198	100.000		농어민	13	6.565	
결혼경험	북한에서의 결혼 경험이 있음	99	50.000		사무직	26	13.131	
	남한에서의 결혼 경험이 있음	20	10.101		학생	29	14.646	
	결혼 경험이 없음	52	26.262		무직	6	3.030	
	남북한 모두에서 결혼 경험이 있음	14	7.070		전문직	12	6.060	
	무응답	13	6.565	고위관리직	15	7.575		
	합계	198	100.000	상업/자영업	1	0.505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북한에서의 노동 당원 여부	노동당원 이였음	26	13.131	북한에서의 직업	서비스직/ 판매직	2	1.010
	노동당원이 아니였음	154	0.777		주부	11	5.555
	무응답	18	9.090		기타	0	0.000
	합계	198	100.000		무응답	9	4.545
					합계	198	100.000
남한에서의 직업	노동자/생산직	44	22.222	북한에서의 경제적 생활수준	아주 잘 사는 편이었다	8	4.040
	농어민	1	0.505		잘 사는 편이었다	36	18.181
	사무직	12	6.060		보통이었다	102	51.515
	학생	25	12.626		곤란한 편이었다	40	20.202
	무직	19	9.595		아주 곤란한 편이었다	12	6.060
	전문직	13	6.565		무응답	0	0.000
	고위관리직	2	1.010		합계	198	100.000
	서비스직/ 판매직	17	8.585	남한에서의 경제적 생활수준	아주 잘 사는 편이다	4	2.020
	주부	20	10.101		잘 사는 편이다	16	8.080
	기타(밀수, 인신매매, 이산가족연결 사업 등등)	21	10.606		보통이다	79	39.898
	무응답	24	12.121		곤란한 편이다	72	36.363
	합계	198	100.000		아주 곤란한 편이다	15	7.575
					무응답	12	6.060
북한에서의 계층지위	핵심계층	14	7.070	합계	198	100.000	
	기본계층	120	60.606	종교	기독교	91	45.959
	적대계층	25	12.626		천주교	11	5.555
	기타	19	9.595		불교	4	2.020
	잘 모르겠다	12	6.060		유교	0	0.000
	무응답	8	4.040		무교	62	31.313
	합계	198	100.000		기타	7	3.535
					무응답	23	11.616
					합계	198	100.000

## 2. 탈북동기에 따른 남한사회적응의 차이

탈북동기에 따라서 남한사회적응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남한사회적응은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응답자 별로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점수의 평균값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탈북동기에 따른 남한사회 환경적 적응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탈북동기에 따른 남한사회 환경적 적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016, p>.05$ ). 하지만 탈북동기에 따른 남한사회 심리적 적응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666, p<.05$ ). 즉, 탈북동기에 따라서 환경적 적응은 차이가 없지만, 심리적 적응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심리적 적응에 한해, 구체적으로 각각의 탈북동기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형과 미래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 이 결과는 미래형 동기를 가지고 탈북한 사람과 경제형 동기를 가지고 탈북한 사람이 정치형과 사회형의 동기를 가지고 탈북한 사람에 비해 심리적 적응이 높음을 알게 해주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는 <표 4>, <표 5> 및 <그림 2>에 요약 제시되었다.

<표 4> 탈북동기에 따른 남한사회적응의 차이

남한사회적응	탈북동기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P
환경적 적응	정치형	18	3.230	.876	.206	1.016	.387
	경제형	63	3.080	.752	.095		
	사회형	24	3.194	.790	.161		
	미래형	93	3.303	.785	.081		
심리적 적응	정치형	18	3.573	.686	.162	3.666	.013*
	경제형	63	3.204	.803	.101		
	사회형	24	3.315	.610	.125		
	미래형	93	3.537	.562	.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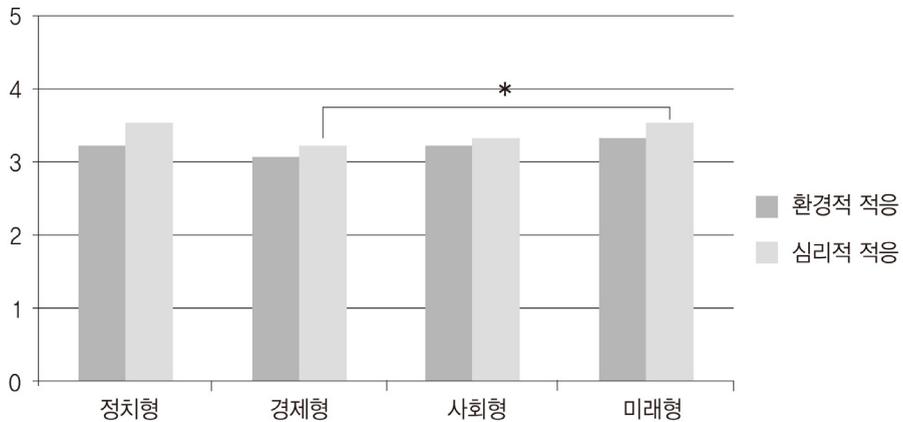
\* $p<.05$

<표 5> 탈북동기에 따른 남한사회 심리적 적응의 차이에 대한 Bonferroni 사후분석

(I) 탈북동기	(J) 탈북동기	평균차 (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정치형	경제형	.369	.178	.235
	사회형	.257	.207	1.000
	미래형	.036	.171	1.000
경제형	정치형	-.369	.178	.235
	사회형	-.111	.159	1.000
	미래형	-.333	.108	.015*
사회형	정치형	-.257	.207	1.000
	경제형	.111	.159	1.000
	미래형	-.221	.152	.884
미래형	정치형	-.036	.171	1.000
	경제형	.333	.108	.015*
	사회형	.221	.152	.884

\*p<.05

<그림 2> 탈북동기에 따른 남한사회적응의 차이



\*p<.05

### 3. 적응유연성에 따른 남한사회적응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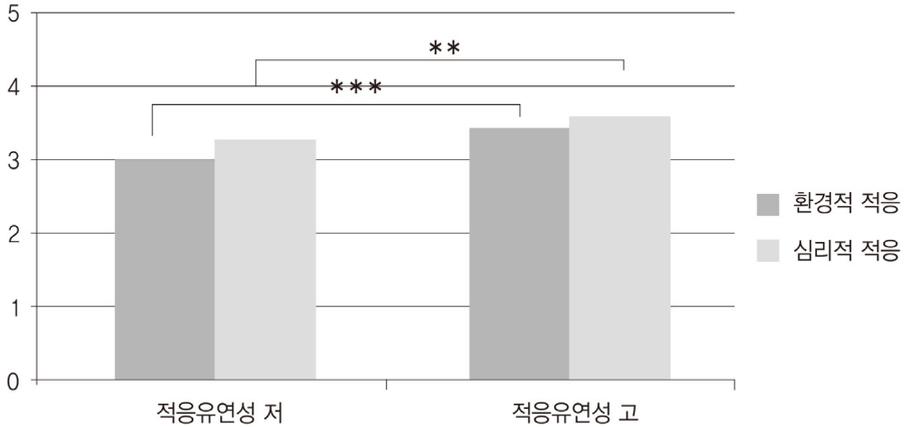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유연성에 따라서 남한사회적응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t검정을 실시하였다. 남한사회적응은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응답자 별로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점수의 평균값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전반적인 적응유연성이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각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적응유연성 42문항 전체에 대한 각 개인별 평균을 구한 후, 평균 3.576 미만을 ‘적응유연성 저 집단’, 평균 3.576 이상을 ‘적응유연성 고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결과, 적응유연성에 따른 남한사회 환경적 적응의 차이에 있어서 고·저집단 간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155, p<.001$ ). 또한 적응유연성에 따른 남한사회 심리적 적응의 차이도 고·저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331, p<.01$ ). 이러한 결과는 적응유연성이 낮은 집단보다 적응유연성이 높은 집단이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서 모두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는 <표 6> 및 <그림 3>에 요약 제시되었다.

<표 6> 적응유연성에 따른 남한사회적응의 차이

남한사회적응	적응유연성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p
환경적 적응	저	96	2.983	.694	.071	-4.155	.000***
	고	102	3.428	.805	.080		
심리적 적응	저	96	3.246	.680	.069	-3.331	.01**
	고	102	3.559	.643	.064		

\*\*\* $p<.001$ , \*\* $p<.01$

<그림 3> 적응유연성에 따른 남한사회적응의 차이



#### 4. 탈북동기와 적응유연성에 따른 남한사회적응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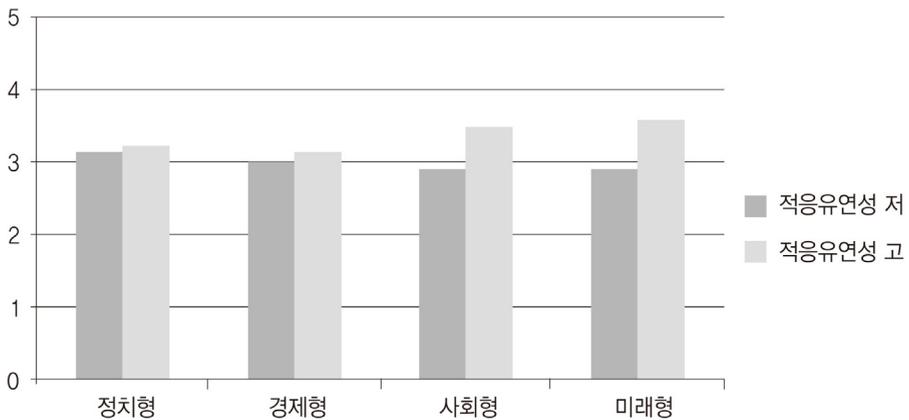
북한이탈 주민의 탈북동기와 적응유연성에 따라서 남한사회적응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남한사회적응은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응답자 별로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점수의 평균값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적응유연성과 탈북동기에 따른 남한사회 환경적 적응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1.683, p>.05$ ). 또한 적응유연성과 탈북동기에 따른 남한사회 심리적 적응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637, p>.05$ ). 이상의 결과는 <표 7> 및 <그림 4>, <그림 5>에 요약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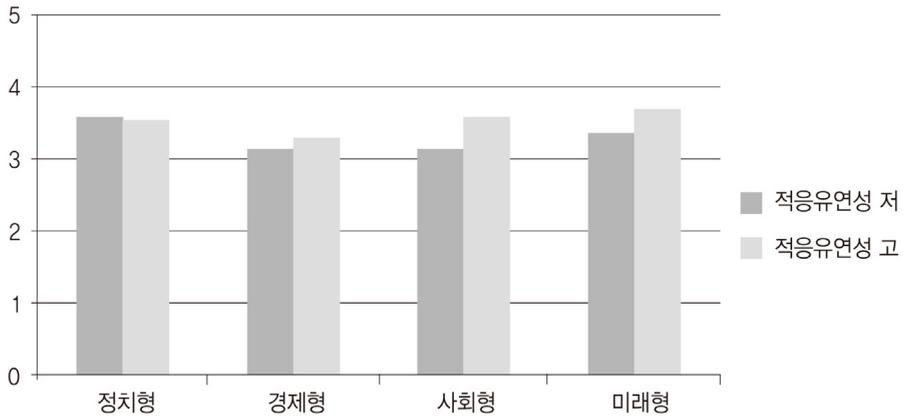
<표 7> 탈북동기와 적응유연성에 따른 남한사회적응의 차이

남한사회적응	탈북동기	적응유연성	평균	표준편차	N	F	p
환경적 적응	정치형	저	3.161	0.508	6	1.683	.172
		고	3.264	1.031	12		
	경제형	저	3.026	0.684	38		
		고	3.163	0.853	25		
	사회형	저	2.903	0.740	12		
		고	3.486	0.757	12		
	미래형	저	2.939	0.730	40		
		고	3.577	0.716	53		
심리적 적응	정치형	저	3.577	0.577	6	.637	.592
		고	3.571	0.759	12		
	경제형	저	3.137	0.795	38		
		고	3.305	0.822	25		
	사회형	저	3.071	0.584	12		
		고	3.560	0.553	12		
	미래형	저	3.352	0.582	40		
		고	3.676	0.509	53		

<그림 4> 탈북동기와 적응유연성에 따른 환경적 적응의 차이



<그림 5> 탈북동기와 적응유연성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



### 5.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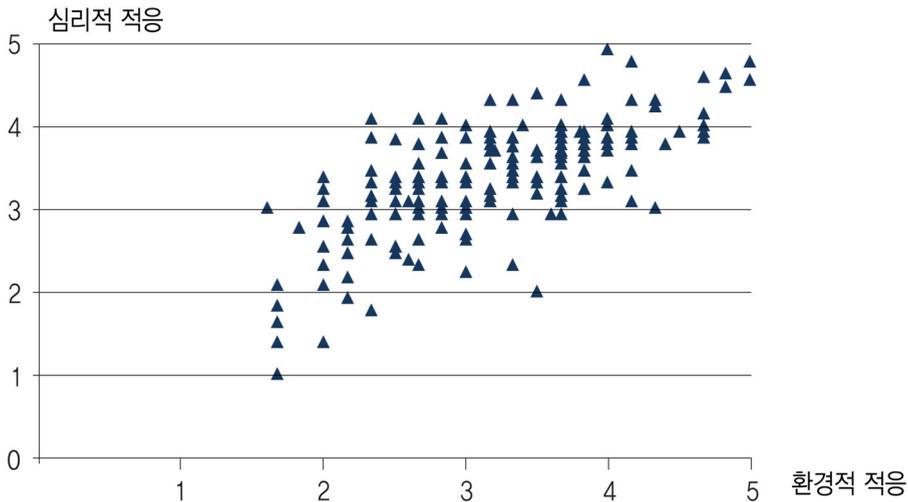
남한사회적응의 두 하위요인인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의 각 응답자 별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매우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r=.718, p<.001$ ). 따라서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간 상호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표 8> 및 <그림 6>에 요약 제시되었다.

<표 8>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의 상관분석 결과

		환경적적응	심리적적응
환경적적응	Pearson 상관계수	1	.718
	유의확률 (양쪽)		.000***
심리적적응	Pearson 상관계수	.718	1
	유의확률 (양쪽)	.000***	

\*\*\* $p<.001$

<그림 6>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의 상관관계



## V. 결론 및 논의

### 1. 결과 논의

본 연구는 하나원 출신의 남한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총 226명을 대상으로, 탈북 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해 살펴보고 그 경로에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사회적응을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여, 탈북동기에 따라서 남한사회적응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 탈북동기에 따른 남한사회 환경적 적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016, p>.05$ ). 하지만 탈북동기에 따른 남한사회 심리적 적응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666, p<.05$ ). 즉, 탈북동기에 따라서 환경적 적응은 차이가 없지만, 심리적 적응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심리적 적응에 한해, 구체적으로 각각의 탈북동기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형과 미래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 이 결과는 미래형 동기를 가지고 탈북한 사람과 경제형 동기를 가지고 탈북한 사람이 정치형, 사회형의 동기를 가지고 탈북한 사람에 비해 심리적 적응이 높음을 알게 해주는 결과이다.

하영수의 연구(2010)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성공율이 15% 미만이라고 지적하고 있듯이,<sup>54</sup>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정부지원과 노력에도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성공적인 적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위 연구 결과에서 심리적 적응이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의 법과 제도, 언어, 문화, 직장생활 등 환경적 적응항목에 있어서는 탈북동기에 따라 차이가 없지만 ‘재북가족에 대한 죄책감’, ‘관심과 흥미의 범위’, ‘희망감’, ‘이방인 느낌’, ‘위축감’, ‘두려움’, ‘자신감’ 등 심리적 적응항목에 있어서는 탈북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정착지원제도에 일부 한계가 있지만, 탈북동기에 따른 개인의 환경적 적응에 차이를 발생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을 가능케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내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독특한 남한문화의 작용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김귀옥(2000)의 연구에서 남한주민이 북한주민에 대해 ‘빨갱이’, ‘거지떼’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남한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일정한 거리감을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다.<sup>55</sup> 이러한 것은 이장호(1992)가 제기한 6·25와 적색공포증,<sup>56</sup> 오수성(1993)이 제기한 바대로 남북한 분단의 장기화 등에 의해 영향 받은 것이다.<sup>57</sup>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으로서 북한의 통치집단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의 적대관계를 유지하지만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 회복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미래형 동기 또는 경제형 동기를 가지고 탈북한 경우가 정치적 사회적 동기나 불만으로 인해 탈북한 경우보다 남한사회적응에서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초기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 심리적 적응을 돕고 탈북동기에 따른 맞춤형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현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정책은 이들의 탈북동기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같은 교육과 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탈북동기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과 정착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sup>54</sup> 하영수,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과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sup>55</sup> 김귀옥, “현대 북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본 북한여성,” 『여성과 평화』, No. 1 (2000).

<sup>56</sup> 이장호, “남북간 심리적 동질성 회복,”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15권 제3호 (1992), pp. 115~125.

<sup>57</sup> 오수성, “적색공포의 본질과 심리적 작용,”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3).

둘째,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유연성에 따라서 남한사회적응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고, 또한 전반적인 적응유연성이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적응유연성에 따른 남한사회 환경적 적응이 고·저집단 간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155, p<.001$ ). 또한 적응유연성에 따른 남한사회 심리적 적응도 고·저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331, p<.01$ ). 이러한 결과는 적응유연성이 낮은 집단보다 적응유연성이 높은 집단이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서 모두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결과이다.

위와 같이 적응유연성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을 더 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유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유연성을 점검하는 항목으로 ‘강인성’, ‘종교적 신념’, ‘사회적 교류’, ‘꿈과 목표’, ‘삶의 의미’, ‘정체성’, ‘가족’ 등의 개념이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적응유연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사회적 교류’의 확대라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긍정적 지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현재 지지 체계 및 자원을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개발 및 확대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엄태완(2009)은 관련 전문직들이 북한이탈주민이 지지체계를 탐색하도록 돕고, 비공식적·공식적 원조자를 지지하고 교육해야 하며, 공식적 지지망을 개발해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sup>58</sup> 북한이탈주민에게 사회적 교류의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북한이탈주민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북한이탈 주민의 탈북동기와 적응유연성에 따라서 남한사회적응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적응유연성과 탈북동기에 따른 남한사회 환경적 적응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1.683, p>.05$ ). 또한 적응유연성과 탈북동기에 따른 남한사회 심리적 적응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637, p>.05$ ).

이러한 결과는 적응유연성과 탈북동기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앞서 연구결과는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탈북동기가

<sup>58</sup> 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이주 과정의 외상적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2호 (2009), pp. 189~213.

미래형과 경제형일수록 남한사회에서 심리적 적응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안정적인 적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응유연성이 낮은 경우 적응유연성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탈북동기에 따라 사회형과 정치형에 속하는 경우 효과적인 남한사회적응을 위해 정확한 사회나 정치영역에서 접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나 교육을 통해 장·단점을 숙지하고 변화에 대한 대처 및 준비교육을 시켜주는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남한사회적응의 두 하위요인인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간에 매우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r=.718, p<.001$ ). 즉,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간 상호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적 적응이 높아질수록 심리적 적응도 높고, 심리적응이 높을수록 환경적응이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환경적 적응항목인 남한사회의 법과 제도, 언어, 문화, 직장생활 등에서 효과적인 적응을 하는 사람의 경우 심리적 적응항목인 ‘재북가족에 대한 죄책감’, ‘관심과 흥미의 범위’, ‘희망감’, ‘이방인 느낌’, ‘위축감’, ‘두려움’, ‘자신감’ 등에 있어서도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제도가 탈북동기에 따른 개인의 환경적 적응에 차이를 발생할 정도는 아니라 하여도 심리적 적응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환경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정착에 실패하여 범죄율이 증가한다면 곧 남한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사회불만세력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남한사회 전체의 북한주민에 대한 이질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기관에서는 문화적응 및 직업교육과 같은 사회적응교육 뿐 아니라 잠재적 일탈행위, 북한이탈주민을 진단할 수 있는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이들을 사전에 선별하고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범죄예방프로그램을 시급히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품행장애 혹은 일탈행위의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일탈행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정착에 성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일원이 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 많은 심층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본 연구는 적응유연성이 남한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지를 검증하였고, 탈북동기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각 개인의 탈북동기에 따라서 차별화된 지원방안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측정도구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몇몇 검사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다양한 검사들의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본 연구에서도 탈북동기를 검사할 수 있는 검증된 측정도구가 없어 네 가지 탈북동기를 허지연(2003)이 분류한 정치형, 경제형, 사회형, 미래형에 제한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탈북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방식은 우편을 발송하여 수신하는 식의 조사방식이었으며, 남북의 언어사용에서 상이성이 존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문항의 정확한 이해도 측면에서 다소의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적응하는 사람과 부적응하는 사람들의 자료들을 동시에 수집한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각 변인들 간의 시간적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는 위에서 지적하는 적응을 위한 순기능적인 변인들을 더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간차를 두고 측정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효과적인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해 실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전략들의 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의 탐색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구성개념들을 밝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들이 더욱 요구된다.

■ 접수: 10월 31일 ■ 심사: 11월 06일 ■ 채택: 11월 22일

## 참고문헌

### 1. 단행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김성윤. 『새터민 정착의 사회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서울: 남북사회문화연구소, 2005.

Lazarus, R. S. &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Merriam-Webster. *Webster's Ni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Springfield, Mass: Merriam-Webste, 1983.

Waite, M., E. Weiner and A. Delahunty (eds.). *Oxford Dictionary and Usage Guide to the English Language*.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Wilson, J. P. & B. Drozdek. *Broken Spirits: The Treatment of Traumatized Asylum Seeker, Refugees and War and Torture Victims*. N.Y.: Brunner, 2004.

### 2. 논문

강권찬.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분석.” 『민족연구』. 14권, 2005.

강유경.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강해성.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초기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구형모 외. “CCQ 자아탄력 척도와 자아통제 척도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0권 2호, 2001.

김귀옥. “현대 북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본 북한여성.” 『여성과 평화』. No. 1, 2000.

김동희. “만성질환아의 극복력(resilience) 측정도구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김승경.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 간의 경로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김재엽·최지현·류원정. “PTSD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사회적 교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4호, 2012.

김택호.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김혜성. “회복력 개념 개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김현아. “새터민의 적응유연성 척도 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김현아 외. “MMPI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차 특성.” 『통일연구』. 제7권 제2호, 2003.

남석인. “신장이식인의 스트레스가 이식 후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

- 위논문, 2002.
- 문숙재·김지희·이명근.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2000.
- 박미석·이종남. “탈북가족의 남한사회 적응시 겪는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 『통일논총』. 제17권.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1999.
- 박윤숙.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박인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분석: 하나원 교육생과 사회 배출자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현선.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11권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8.
- \_\_\_\_\_. “실직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한국아동복지학』. 제8호, 1999.
- 서주연.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신예정.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삶과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이주 과정의 외상적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2호, 2009.
- 유성경 외.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제18권 1호. 2004.
- 유시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카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귀순자수기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 오수성. “적색공포의 본질과 심리적 작용.”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3.
- 이소영. “학교중단 청소년의 중퇴이후 적응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원숙. “성폭력 상담의 사회복지적 지원체계-위기상담으로서의 성폭력 상담-.” 『한국성폭력상담소』. Vol. 2000, No. 1, 2000.
- 이장호. “남북간 심리적 동질성 회복.”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15권 제3호, 1992.
- 전미영. “암으로 사별한 가족의 복원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 \_\_\_\_\_. “남한 내 탈북자들의 의식 및 생활만족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Vol. 43, No. 1, 2004.
- 정성덕 외. “중국 거주 조선족 여성의 영적 안녕정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영남의대학술지』. 제21권 2호, 2004.
- 조동운·김용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2호. 2011.

- 최동문. “북한이탈주민 정착적응 실태와 발전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하영수.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과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7권 1호. 2010.
- 허지연. “탈북자의 탈북요인과 중국, 한국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 이상적 정착지와 행위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3.
- Berry, J. W. and D. L. Sam.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J. W. Berry, M. H. Segall, and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 Social Behavior and Applications, 1997.
- Garmezy, N.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Vol. 56, 1993.
- Luthar, S. S. & D. Cicchetti. “The Construct of Resilienc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and Social Polic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12, 2000.
- Maddi, S. R. “The Personality Construct of Hardiness: Effects on Experience, Coping and Strain.”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Practice and Research*. Vol. 51.

## A Study on Defecting Motive and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Jung-Ae Jung, Young-Chul Son and Jeong-Hwa Le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degree of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upon their defecting motive and the relations between those two factors. The research analyzed 226 mail responses from North Korean defectors who graduated from the Hanawon and resettled in South Korea. There's no meaningful difference in environmental adaptation of NK defectors upon defecting motive. Psychological adaptation, however, shows meaningful difference upon defecting motive. According to the defectors' defecting motive, the level of psychological adaptation is different while environmental adaptation is not.

On more specific analysis on psychological adaptation,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economic type and future type defectors. This means that future and economic type defectors have better psychological adaptation than political, social type defectors.

Also ther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upon their resilience. Defectors of high level of resilience show better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There was no big difference in social adjustment with resilience and defecting motive while there's a meaningful 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This means that the higher level of environmental adaptation, the higher psychological adaptation is observ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be provided as basis to find practical intervention method to help NK defectors' social adjustment in South Korean society.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Defecting Motive, Social Adjustment in South Korea, Resilience